RIO+20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ESCO

FAO FIAT PANIS

UNDP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청사진

본 자료에서 사용된 특정 국가의 법률적인 입장, 영토, 도시, 관할권, 혹은 국경이나 경계에 관해 사용한 표현은 IOC/UNESCO, IMO, FAO, UNDP 의 의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본 문서를 인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IOC/UNESCO, IMO, FAO, UNDP. (2011). *Summary for Decision makers: A Blueprint for Ocean and Coastal Sustainability*. Paris: IOC/UNESCO

감사의 글

본 보고서는 IOC/UNESCO 주도하에 여러 후원 기관과 프로그램에 소속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이 밑거름이 되어 많은 자원봉사단의 노력의 결실로 이루어 졌다.
보고서 초안 작성과 편집에 힘 써준 Nigel Bradly에게 감사한다.
또 의사결정자 용 요약본을 만들어준 Colin Moorhouse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작업에 기여해 준 아래의 UN 기관에도 사의를 표한다:
- FAO 농수산국(Fisheries and Aquaculture Department),
- UNDP 해양과 물 관리프로그램(Ocean and Water Governance Programme)
- IMO 해양환경국(Marine Environment Division)
- UNESCO 정부간해양학위원회(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 UNESCO 소도서 및 전통지식과(Section for Small Islands and Indigenous Knowledge)

초안에 의견을 개진해 준 많은 분들과 동료에게 감사한다: Biliana Cicin-Sain (세계해양포럼:Global Ocean Forum), Paul Holthus (세계해양협의회:Word Ocean Council), Joan Yang (Pew Environment Group), Peter Kristensen (세계은행:World Bank), Indu Hewawasam (前세계은행), Kathleen Abdalla (UN-DESA 지속가능발전국 :Divi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Kenneth Sherman (US-NOAA), Dr Awni Behnam (IOI).

끝으로 보고서를 원활히 출판할 수 있게 도움을 준 Eric Lodde와 IOC 문서담당관에게도 감사한다. 본 보고서는 웹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http://www.unesco.org/new/en/rio20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청사진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

본 보고서 발간에 도움을 준

UN 기관과 프로그램

UNESCO 정부간해양학위원회 (IOC/UNESCO)

1960년에 설립된 UNESCO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는 해양과 연안지역의 자원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해양연구와 서비스, 관측체계와 위험경감 및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있다. IOC는 이 정보를 활용하여 142개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해양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해양 자원과 기후변동에 대한 통제, 관리, 제도적 역량,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유엔해양법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그 외 해양과학연구와 관련 서비스 및 능력 확충에 대한 요청에 부응하여 주무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sation, IMO)

IMO는 해사 안전과 보안 및 선박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유엔(UN) 전문 기구이다.
국제 교역의 약 90%가 국제 해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 해운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정규 운영 조직이 필요하다. 170개 회원국을 보유한 IMO가 이 체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선박 설계와 운영에 관한 모든 실질적인 기술을 규제하는 52개 조약을 채택하였고, 그 중에서도 오늘날 전세계 상선의 99%에 적용하고 있는 해상 인명안전과 환경보호에 관한 조약을 가장 중요한 조항으로 들 수 있다. IMO가 국제 해운 규정을 채택하였다 하더라도 그 규정을 구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몫이다. IMO는 해운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술지식과 자원이 부족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기술협력프로그램 (Integrated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 ITCP)을 개발하였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인간이 양질의 식량을 구해 활동적이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일은 수산양식을 포함한 모든 FAO 활동의 핵심이다. FAO의 의무는 영양 수준을 높이고 농업 생산성을 개선하고, 지방 인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며 세계 경제 성장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수산과 양식은 책임 있는 지원과 개발이 뒷받침된다면 빈곤하고 혜택 받지 못한 집단의 복지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FAO의 비전은 수산 양식 자원을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사용하여 인류복지, 식량안보, 빈곤구제에 적절히 기여토록 하는 것이다. FAO 농수산국은 특히 전세계 통제력과 관리 및 회원국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수산 자원의 보존과 이용을 개선할 수 있는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UNDP는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일궈갈 수 있도록 국가간의 지식, 경험, 자원의 교환 및 연계를 장려하기 위한 유엔 국제개발네트워크이다. UNDP는 177개 회원국과 함께 전세계 및 국가적인 개발 도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UNDP는 지역의 능력을 개발을 통해 인력과 다양한 협력자들을 모아 나가고 있다.

UNDP는 해양과 연안관리 프로그램(Ocean and Coastal Governance Programme)을 수행하여 효과적인 해양관리를 통해 지방, 국가, 지역, 국제적 수준에서 삶이 지속 가능하도록 유지하고 해양관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다른 UN 기관, 지구환경기금 (Global Environment Facility), 국제금융기관, 지역 수산업 기구 등과 협력하고 있다. UNDP-GEF는 광역해양생태계 프로그램 (Large Marine Ecosystem Programme)을 통해 열 곳이 넘는 광역해양생태계의 해양 자원 관리를 위한 생태친화적 방안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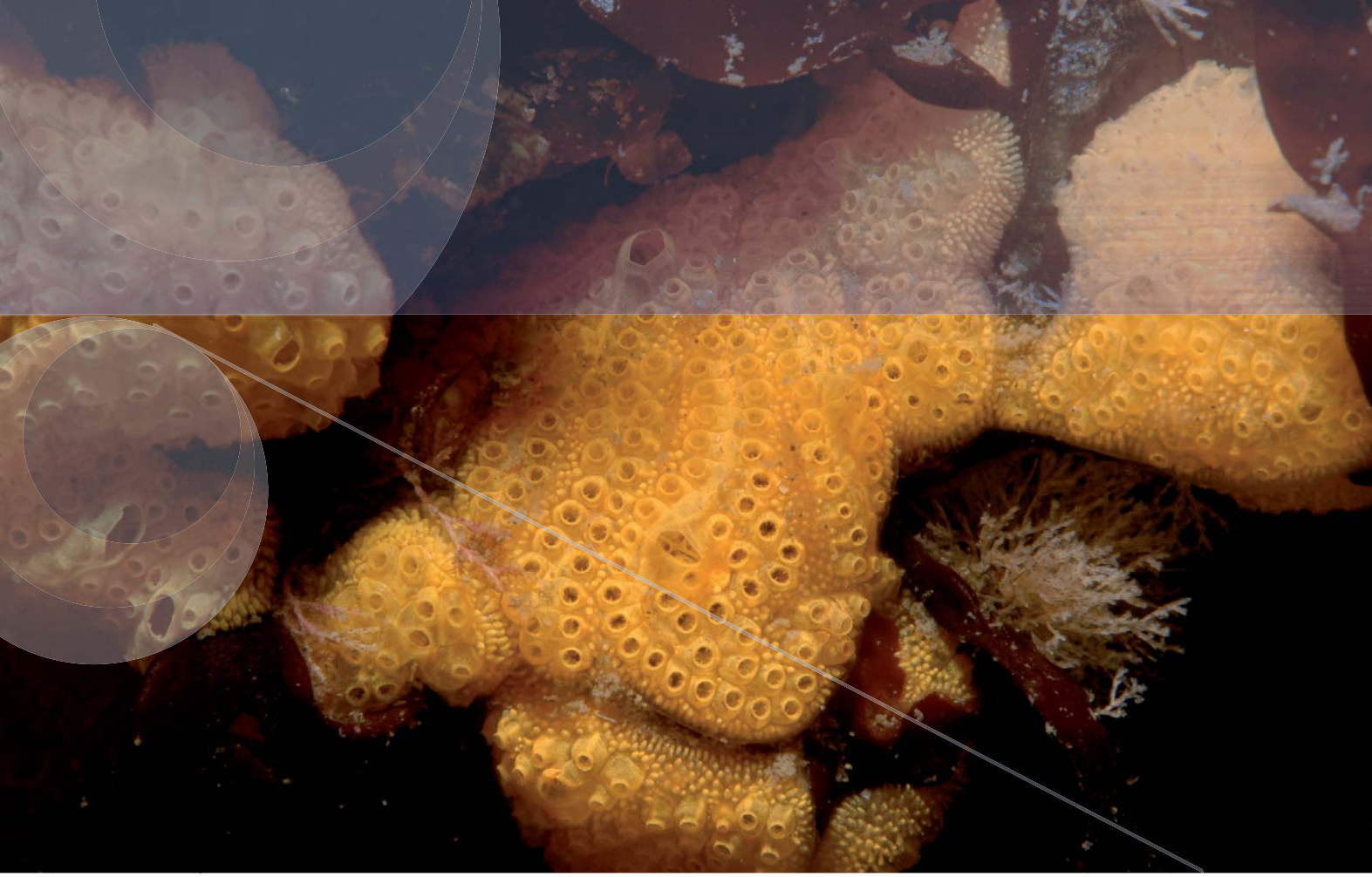
요약본

이 문서는 4개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작성한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청사진'의 요약본으로서, 세계 해양과 연안관리의 현황 문제를 분석함으로서 Rio+20 토론 자료로 사용코자 작성되었다.

해양은 지구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를 지탱해주는 해양의 건강과 인간의 복지와 살아있는 환경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해양은 산성화, 기후변화, 오염, 남획 등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위협 받고 있는 생태계의 하나이다. 이것은 지구에 거주하는 인간의 다양한 삶의 형태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번영과 경제개발에 대한 인간의 열망을 위험에 빠트리게 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20년전 리오에서 채택되었었던 몇 가지 목표와(요하네스버그 실천계획, 지속가능위원회 권고사항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들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큰 진전을 이루어 냈다는 것이다. 그 중 유네스코IOC, UNDP, FAO, IMO는 오늘날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낸 책임있는 기관들이다. 전지구 해양관측시스템(GOOS)중 2/3가 실행되고 있고, 광역생태계사업(LME)은 해양과 연안의 생태계 기반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해양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해양에 대한 전지구적 차원의 보고와 평가를 위한 제도가 가동중에 있다.

위협 받고 있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협약들이 체결되었고, 새로운 지역 수산관리기구들이 설립되었다. 소도서 개발도상국(SIDS)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왔다. 수산업과 양식업의 생태적인 방식에 대한 지침이 개발되어 일부지역에서 잘 추진되고 있다. IMO는 처음으로 도입했던 전체 경제 분야에 대한 전지구적 온실가스 저감제도를 실시를 포함하여 국제 해운 활동으로 부터의 환경보호를 다루는 21개 국제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런 국제사회의 노력과 제안에도 불구하고, 보호되고 있는 해양은 전체의 1%에 불과하다. 많은 국제협약이 체결되었지만 실행 속도는 느리다. 최대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 감소되고 있는 어획량을 유지, 복원하기위한 협약이 몇몇 종을 제외하고는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불법/미신고/규제권 밖의(IUU)어로 행위 규제는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육상 기인에 의한 해양오염은 계속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선체에 부착되어 유입되는 수생 침입종은 아직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생물다양성과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협약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요하네스버그 선언(JPOI) 이후 부각된 많은 문제들은 해양과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향한 진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들자면, 증가되는 부영양화로 인한 서식지 황폐화, 해양을 기반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부족, 산호초 파괴, 해양쓰레기(특히 플라스



틱 부스러기) 의 광범위한 산재, 체계적인 자료 교환 미비 등이 포함된다.

증가하는 인간에 의한 과도한 개발행위를 비롯하여 생산기술의 발전과 기후 변화의 영향은 모두 해양의 생산성을 감소시킨다. 이는 특히 전세계 저위도 지방에서 어업에 의한 식량안보의 위협을 현격하게 증가 시킨다. 한마디로 세계는 국제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전세계 어족자원의 상당량이 감소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수생 침입종과 저(무)산소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산호초가 유실되거나 황폐화되고 있으며, 이는 전면적인 생물다양성의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그럼에도 해양의 복원력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전세계가 해양을 보호하면서도 지속가능한 개발에 잠재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예를 들면, 청녹색 경제 개념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 개념이 지속가능성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세 가지 중심축과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다.

해양 재생에너지, 해양생물 유전자원, 생태계 기능 등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가운데서도, 연안국들 뿐 아니라 전세계 국가들이 해양보존과 경제 안정성,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이다.

세계 각국과 그들이 지원하는 국제기구들이 선택한 해양에 대한 대책은 빈곤퇴치, 경제성장, 환경보호를 지원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복지에 매우 중요하다. 연구기관들을 지원하고 전문화하는 것은 물론, 전 지구적, 지역적 차원의 보존 방법 실행과정에서 발생되는 해양관리 능력의 격차와 제도적 미비는 Rio+20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UN 체계가 UN 기구들 간의 의사소통, 조정,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도력을 보여주고, 재정 지원과 사업추진을 통해 해양조정을 위한 개편된 체제를 Rio+20 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 정부, 기업, 개인 모두 혼연 일체가 되어 실행력, 정치적 제도적 의지, 능력, 변화를 위한 열망을 보여 주어야 한다. 청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물리적, 행동적, 제도적 요인이 혼합되어야 한다. 다음의 메트릭스, 목표, 제안에는 변화에 필요한 사항들이 요약 되었다. 뒷따르는 분야에 상세히 표시된 각각의 제안사항은 행렬내 목적들과 비교되고 있다. 표의 목적은 미래 변화에 있어 상호 연관성이 중요함을 재강조 하면서, 각 제안들이 얼마나 폭넓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스팩트럼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각 제안과 목적간의 연관성을 보여 주는 메트릭스	**목표 1**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고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복원
1.a 해양산성화를 완화하고 이에 적응할 수 있는 긴급행동을 실행한다.	●
1.b 생명이 넘치는 해양과 연안 서식지를 더욱 보호, 복원하기 위한 전지구적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고, 서식지 보호를 통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전지구적 청색 탄소 시장을 개발한다	●
1.c 수생 침입종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틀을 강화한다	●
2.a 소도서 개발도상국에 녹색 사회 건설: 주요 취약성 문제 해결	
2.b 녹색 경제하에서 책임 있는 수산과 양식을 위한 노력을 증진한다	●
2.c 영양염의 효율과 회복을 위한 정책, 규정, 경제적 제도를 통해 영양염을 친환경적으로 사용하고 해양 산소 결핍을 줄인다	●
3.a 국가 관할권 이원의 서식지와 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틀을 만들고 실행한다	●
3.b 지역적 해양 관리 기구를 개편한다	
3.c 해양 문제에 대한 UN 체계의 조정, 통일성, 효율성을 강화한다	
4.a 지속적인 관측, 감시, 해양 조사, 국제 협약 이행에 대한 단계적 평가를 위한 제도적, 인적 역량을 키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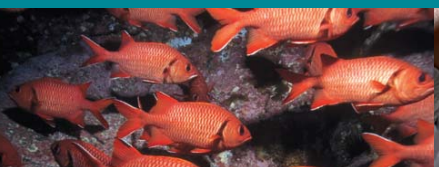
● 1차목표 ● 2차목표

목표 2 청녹색 경제 지원	**목표 3** 효율적인 해양관리를 위한 정책적/법적/제도적 개혁을 추진	**목표 4** 지식을 증진하고 대두되는 문제를 해결하며,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방편으로써 해양조사, 감시와 평가, 기술 및 역량 이전을 지원한다.
		○
○		○
○	○	○
●		○
●	○	○
●	○	○
	●	○
	●	○
	●	
○		●

각 목표에 대한 10가지 제안

목표 1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고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복원



제안 1.A

해양산성화를 완화시키고 이에 적응할 수 있는 긴급행동을 실행한다.

바다는 인류가 대기 중으로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26% 이상을 흡수한다. 그 결과 해수가 산성화(Ph농도가 낮아짐)되고 플랑크톤과 패류 생장에 꼭 필요한 칼슘이 결핍된다. 이들 생물들은 많은 해양생물 먹이사슬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전체 해양생태계의 산성화로 인한 잠재적인 영향은 매우 크다.

이 제안은 해양산성화 위해 평가를 위한 전지구적 학제간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동 사업의 목적은 전지구적/지역적/국가적 차원의 예측을 시행하고, 산성화가 해양생태계의 붕괴를 촉발할 수 있는 임계점을 인식하는데 있다. 여기에 추가하여, UN기후변화협약의 협의 안건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해양화학과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해양산성화에 관한 모나코선언 이행 협약에 보다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 산성화의 영향을 줄이거나 역전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제안 1. B

생명이 넘치는 해양과 연안 서식지를 보호, 복원하기 위한 전지구적 지구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고, 서식지 보호를 통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전세계 청색 탄소 시장을 개발한다.

해양환경이 제공하는 생태계 기능은 연안 국가들의 식량안보, 빈곤 구제, 경제적 안정에 중요하다. 서식지와 생물다양성의 복원은 보호방법이 자리를 잡고 이용방법이 변화되었을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투자, 기업에 의한 매입, 연안 국가들의 실행이 필요하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진 일정과 함께 연안서식지 보호와 복원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이 제안에는 주요 서식지의 경제적 평가제도, 생태 관광과 소규모어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장려금제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한 청녹색 경제를 창시하여 장려하는 것이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청색 탄소 기금을 통해 거래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청색 탄소시장을 전지구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장려하고, 감시와 인증을 위한 합의된 기준을 가진 전지구적 청색탄소 전략을 개발하는 것도 포함된다.

예상되는 결과로는 전 세계에 걸쳐 보호되는 연안 서식지가 늘어나게 되고, 청색 탄소 시장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청녹색적 접근방법의 가치를 시현하게 될 것이다.

제안 1. C

수생 침입종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틀을 강화한다.

전세계 232개 생태구역의 80%에서 구국제해운의 밸러스트 수와 선체부착을 통해 전달된 수생 침입종(AIS)이 현존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AIS와 관련된 전체 비용은 연간 천억달러로 추산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일단 침입종이 정착되면 실질적인 복구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제안의 목적은 밸러스트 수에 대한 관련 IMO 협약이 실행되도록 함으로써 전 지구적인 노력을 가속하는데 있다. 과학적 지식을 늘리는 것 역시, 수생 침입종의 통제를 위해 중요하다.

이 제안의 예상되는 결과는 기술혁신, 조정된 전 지구적인 감시와 강제시행, 역량 강화를 포함한 효과적인 국제적/지역적/국가적 대응방안을 통해 새로운 침입종의 유입을 줄이거나 막고, 기존 침입종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것이다.

목표 2

청녹색 경제 지원

제안 2. A

소도서 개발도상국에 녹색 사회 건설: 주요 취약성 문제 해결

소도서 개발도상국(SIDS)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지리적 고립, 작은 크기 때문에 특히 위험하다. 주지하다시피, 그들은 해양환경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위협에 특히 취약하며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의 지원 필요성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 그들의 해양, 연안, 수산업 분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들은 Rio+20가 지속가능한 해양개발과 자원 보호를 지원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방안으로는 남획 축소, 해양보호구역(MPA) 설정, 하수와 고형 폐기물관리 개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제안은 SIDS 의 독특한 생태관리 방식이 녹색 사회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역량 개발, 기술 이전, 지역 간 교류를 위한 계획이 개발될 것이다. 다른 목적으로는 전 지구적 데이터베이스(DB) 활용 개선, 국가 자료 관리 체계 설립, 비용 효율적인 기술 증진, 공공-민간 제휴를 통한 지속적인 재정지원 등이 포함된다.

결과로는 SIDS의 환경적, 경제적 제약요인을 다루기 위한 철저한 계획이 수립될 것이다. 또한, 빈곤 구제, 기후 변화 적응, 환경 관리에 기여함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제안 2. B

녹색 경제하에서 책임 있는 수산과 양식을 위한 노력을 증진한다.

2009년 전세계 수산 어획량의 80% 이상이 소비를 위한 것이었고, 약 42억명이 1인당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보다 15% 많은 양을 섭취하였다. 수산과 양식은 약 1억 8천만 명에게 정규, 비정규 일자리를 제공 함으로써 5억 명 이상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이 제안은 FAO 책임 있는 수산을 위한 행동 규약과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책임 있는 수산 관리와 양식 개발에 필요한 모든 수준의 인식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이과정에서, 다른 부문과 의사결정자들 간의 연계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의 원칙과 이익을 부각시키면서 관련 문제가 전지구적 의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상되는 결과는 새 천년개발목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상회의(WSSD) 이행계획, 기타 협정에 언급된 바와 같이, 어업, 양식, 해양자원과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에 관해 기 합의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의 노력과 자원을 늘리는 것이다.

제안 2. C

영양염의 효율과 회복을 위한 정책, 규정, 경제적 제도를 통해 영양염을 친환경적으로 사용하고 해양 산소 결핍을 줄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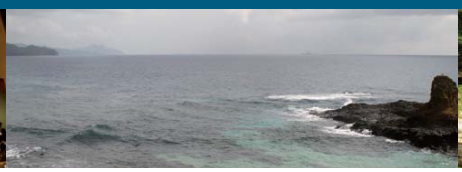
1900년 초 이래로, 농업용 유출수(비료와 퇴비)와 하수로부터 연안과 해양에 유입되는 질소와 인의 양이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늘어나는 양으로 부패되는 플랑크톤이 모든 산소를 소모함으로써 죽음구역(dead zones)을 형성하게되어, 연안 생태계와 경제 부문 및 여기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 현상은 세계적으로 대다수의 하수가 재대로 처리되지 않거나 미처리되고 있는 현실과 겹쳐, 연안 저산소 지대가 계속 늘어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2008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400여개의 저산소 지대가 보고되었다.

해양에 대한 전 지구적인 주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영양염 오염과 저산소 지역 증가와 함께, 농업용 영양염 이용의 효율성을 대폭 늘리고, 버려진 영양염의 복구율을 증가시켜 비료나 다른 목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긴급한 현안사항이다. 효율성과 복구를 증진하기 위한 세금, 정책과 무역, 보조금 등도 함께 사용하면서 동시에 검증된 정책적, 규제적, 경제적인 제도들은 전반적으로 직선적인 영양염 경제를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좀 더 순환적 방식으로 확대 전환할 필요가 있다. 배출권 거래제(ETS)를 실시하는 나라에서는, 이들 시장과 규제 신호에 대응하여 혁신을 이룬 비료 회사들의 경우 에너지 사용과 온난화 가스 배출을 현격하게 감소시켰기 때문에 탄소 배출에 대한 권리를 판매할 수도 있다.

이 제안의 결과는 재생된 질소나 인으로 생산한 비료의 양을 점차 늘려 나가고, 생산되었 거나 재생된 비료의 농업용 이용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비료 원료 물질을 다양하게 늘려나감으로서 비료 가격과 불안정성이 완화되고 세계 식량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연안에 유입되는 질소와 인의 부하양을 줄임으로서 저 산소 지대가 줄어들게 된다.

목표 3

효율적인 해양관리를 위한 정책적/법률적/제도적 개편



제안 3. A

국가 관할권 이원의 서식지와 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틀을 만들고 실행한다.

국가관할권 밖에 위치한 광범위한 생물다양성을 갖고 있는 서식지는 빨리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생물다양성 구역으로 알려져 있다. 심해 채광, 점증하는 어획활동, 생물유전자 개발, 심해 오일 가스 시추와 같은 새로운 활동과 함께 기술적 변화는 과거에는 위험이 없었던 분야마저 점차 위협하고 있다. 부적절한 관리는 이들 지역의 해양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 제안은 UN 해양법 협약 하에서 다자간 합의를 진전시키는 것은 물론 이들 해역에 대한 관리상의 부족한 점과 향후 나아갈 방향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들 합의에는 해양생물 다양성 보호 방법을 포함하여 보호가 필요한 국가관할권 이원의 생물다양성 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목표와 절차가 포함된다.

예상 결과는 예방적 원칙과 생태적 방안을 근간으로 전 지구적으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적용 가능한 국가 관할권 이원 지역에 대한 관리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목표 3

제안 3. B

지역적 해양 관리 기구를 재편한다.

지역적 해양관리 기구의 재편이 매우 긴요하다.

이 제안은 생태계 기반 방안을 통해 해양환경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지역 기구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각 개별 기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 제안은, 국제적, 국가적 기구간의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제에 대처할 지역 기관들의 능력을 강화하고, 전 지구적, 지역적 협약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제안 3. C

해양 문제에 대한 UN 체계의 조정, 통일성, 효율성을 강화한다.

UN-Oceans 는 유엔 체계하에서 해양과 연안 문제에 대한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기관간 공동 조정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2003년 설립되었다. 유엔 기구간의 대화, 조정,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더 강력하고 가시적인 제도의 필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 제안은 적절한 방법을 통해 회원국과 주요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해양과 연안 문제에 대해 더 고위급의, 더 효율적인 조정, 협력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UN-Oceans를 점검해보는 것이다.

강화된 UN-Oceans 를 통해 기구 간의 조정, 통일성, 비용 효율이 개선되고, 유엔 체계 간에 해양 문제를 보다 전략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며, 해양문제를 다루는 모든 참여기관들에게 이익이 되는 공동 프로그램을 증진할 수 있게 된다.

목표 4

지식을 증진하고 대두되는 문제를 해결하며,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방편으로써 해양조사, 감시와 평가, 기술 및 역량 이전을 지원한다.

제안 4. A

지속적인 관측, 감시, 해양 조사, 국제 협약 이행에 대한 단계적 평가를 위한 제도적, 인적 역량을 키운한다.

해양과 연안을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기반의 정책과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확고한 제도적 체제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많은 기구들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생산을 위해 해양에 대한 전 지구적인 보고와 평가 체제의 필요성을 오랫동안 인식하여 왔다. 이를 위해 2005년에 유엔 총회는 이런 제도의 첫 번째 단계로 '평가를 위한 평가'(Assessment of Assessments)라 불리우는 해양환경의 보고와 평가를 위한 절차를 만들었고, 후에 '정규절차'(Regular Process)라는 이름으로 2010년에 공식 출범하였다. 이제 유엔 회원국 들은 '정규 절차'의 적절한 지원을 통해 계획된 전지구적 평가결과를 2014년까지 제출토록 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위원회(CSD)가 해양에 대해 검토하며 이후 다음 5개년 계획에 돌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적인 감시를 위해 역량이 부족한 국가들에게, 특히 개발도상국과 소도서개발도상국(SIDS)에게, 역량 개발과 기술 이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제안은 '정규절차'가 운용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각 국가들과 국제금융지원 기관들에 게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지구적, 지역적 능력 개발 요구를 평가하고, 과학적 평가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 방법을 증진하는 전지구 해양 관측 시스템(GOOS)의 준비태세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양과 연안지역에 대한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책임을 맡는 국제기구가 지정되어야 한다.

예상되는 결과는 사전 예방적 조치로서 해양생태계에 인간 활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을 증진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과학적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다지는 것이다. 단일기구가 행한 평가절차에 대한 승인된 평가체제와 지표는 해양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협약의 실행을 위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